

2025년 2월 2팀 전국 순례 자료

갑곶순교성지, 진무영순교성지,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한미희 수산나

■갑곶순교성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1366번길 35 ☎(032)933-1525

인천 끝단에 있는 넓이 406km²의 강화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역사 및 문화 유적이다. 수도 방어 의 요충지로서 고려 시대부터 외세와 격렬하게 충돌해 온 역사의 현장인 강화는 호국의 기상이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혹독한 박해를 겪어야 했던 신앙 선조들의 믿음과 순교에 이르는 열정도 함께 지니고 있다.

강화도의 갑곶성지의 유래는 한국천주교회 창립 초기인 1795년, 조선에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한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철종(哲宗)의 조모(祖母)인 송(宋)씨(은언군의 처)와 며느리 신(申)씨를 각각 마리아로 영세를 준 것이 조정에서 알려지게 되어 왕족인 고부(姑婦)가 함께 1801년(辛酉迫害)에 순교하게 되자, 이러한 연유로 1786년(정조 10년)부터 자식 상계군(常溪君)의 역모 죄로 강화도에 귀향하여 살던 은언군(恩彦君, 철종의 조부)도 강화부(관청리 형방)에 배소되어 처형되었고, 또한 신유박해의 순교자요 백서(帛書)를 쓴 황사영(黃嗣永)의 탄생지가 이곳 대묘동에 있어 강화도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시기부터 인연을 갖고 있다.

1845년 5월 14일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고(高) 주교의 명으로 선교사를 비밀로 입국시키는 해로(海路)를 개척하기 위해 서울 마포를 떠나 이곳 강화 갑곶(甲串) 앞바다를 지나 연평도, 백령도를 거쳐 순위도에서 관원에게 잡혔다. 그래서 이곳 갑곶 해안은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해로 여행지가 되었고, 1856년 베르뇌 장(張) 주교와 프티니콜라 신부, 푸르티에 신부, 1857년 페롱 권(權) 신부가 비밀리에 입국한 요로이기도 하다.

강화 지역이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866년 병인양요와 이에 이은 병인박해 때이다. 어느 박해보다도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병인년의 교난을 초래했던 병인양요의 현장이 바로 강화도이다.

병인박해의 회오리는 강화대교 서쪽 끝에 서 있는 갑곶돈대(甲串墩台, 사적 제306호)에서 일기 시작했다. 갑곶돈대는 1679년에 축조되어 8문의 대포를 설치한 포대를 두었다. 조선 숙종 5년(1679년) 강화에는 모두 5진(鎭) 7보(堡) 53돈대(墩台)의 국방시설이 설치됐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성직자 9명을 처형한 책임을 물어 강화도를 점령하고자 했던 프랑스 함대가 바로 이곳으로 상륙,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했다. 결국 프랑스군은 후퇴했으나 이것으로 인해 강화 지방에서는 병인박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박해를 받게 되었다. 갑곶 순교성지에서 바라보이는 바다 백사장에서 많은 신자가 이슬로 사라졌다.

프랑스 함대를 방문하여 리델 신부를 만나 교회 소식을 전했던 성연순(成連順)과 원윤철(元允哲)이 1866년 10월 순무영(巡撫營)에 넘겨져 양화진에서 효수형을 받았다. 그리고 1868년에는 최인서(崔仁瑞, 요한), 장치선(張致善), 박순집(朴順集)의 형 박 서방, 50세 된 조참봉의 부친 등이 병인양요와 연루되어 강화에서 순교하였으며, 1870년에는 통진 출신 권 바오로가 20세의 나이로 강화에서 교수형을 받기도 했다. 1871(辛未)년 4월에 강화도 해역에 미국 함대 4척이 나타

나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가 평양에서 조선인에 의해 방화된 사건의 책임을 묻고 통상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이를 거절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더욱 심하게 천주교를 박해하였다. 이때에 이승훈의 증손인 이연구(李蓮龜)와 군규(筠龜)가 제물포에서 잡혀 군문효수되고, 이승훈의 손자인 이재겸(李在謙)의 처 정(鄭)씨와 그의 손 이명현(李明玄)과 백용석(白用石) 등도 이와 관련하여 순교하였다. 미국 군함이 물러간 5월 25일 고종(高宗)은 더욱 철저히 천주교인을 잡아 처벌할 것을 좌우포도대장에게 교서를 내리게 되고, 이때에 미국 함대에 왕래한 박상손(朴常孫), 우윤집(禹允集), 최순복(崔順福) 등이 첫 번째로 잡혀가 갑곶진두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된 것이다. 순교자들의 목을 베어 말뚝에 올려놓아 천주교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문헌상의 갑곶진두의 정확한 위치를 찾은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그 자리를 매입하여 지금의 갑곶 순교성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1999년 11월 성지를 새로 단장하고 2001년 7월에 제대 및 십자가의 길과 성모상 축복식을 거행했다. 그해 9월 20일에는 갑곶 해안에서 순교한 박상손, 우윤집, 최순복 순교자비 제막식과 순교자들의 행적 증언자이며 인천교구 역사의 증인인 박순집(베드로) 증거자의 유해 안장식을 가졌다. 2005년 4월에는 1997년 성지 부지를 인수할 당시 낡은 관공서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던 기존 경당을 재단장해서 성당 축복식을 거행하고 김대건 성인과 남종삼 성인의 유해 일부를 모셨다. 성당 아래에는 넓은 야외 행사장과 묵주기도 길, 십터 등을 조성하여 순례자들을 맞이하였다.

인천교구는 2011년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갑곶 성지와 연결하여 바로 옆에 ‘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교구 신자들의 신앙을 심화하고 영성의 내면화를 위해 시작한 영성센터는 신자들의 정성으로 2012년 11월 20일 준공하여 2013년 12월 8일 영성센터 축복미사를 봉헌하였다. 모두 세 개 동의 건물로 건립된 영성센터는 신미양요 때 이곳에서 순교한 세 순교자를 기리고자 박상손관(A관), 우윤집관(B관), 최순복관(C관)으로 명명되었다. 박상손관과 우윤집관은 영성수련관으로 총 50개의 방을 갖춰 한 번에 100명의 단체 피정이 가능해졌고, 지하에는 순례자를 위한 바다의 별 성모성당이 마련되었다. 최순복관에는 성당과 사제관, 사무실, 성물방 등이 들어섰다.

[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17년 6월 3일)] [출처 : 갑곶순교성지 홈페이지]

●증거자 박순집(朴順集) 베드로(1830-1911년)

많은 순교자들의 행적을 듣고,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순교자들의 유해 발굴에 큰 공을 세운 박순집(朴順集) 베드로는 1890년에 인천 제물포로 이주(移住), 1911년에 숙골(현 도화동)에서 82세의 나이로 선종, 인천 교구와 인연을 갖게 되었다.

박순집 베드로는 1830년 10월 9일 서울 남문 밖 전생서(典牲署, 현 용산구 후암동)에서 순교자 박(朴) 바오로와 김(金) 아가다 사이에서 태어났다. 박 바오로 나이 21세에 딸아들 요왕을 낳고, 24세 둘째 아들 베드로를 낳았다.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으나 베드로가 세 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였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착한 베드로는 신체 발육이 남달라 성장하며 힘이 장사로 마을 대항 씨름 대회에 나가 소년 장사가 되어 황소를 타 마을로 개선하기도 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소년 박 베드로는 이조모(姨組母)댁이 1837년에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 앵베르[Imbert, 범(范)] 주교가 입국하여 은신하며 머물고 있는 북촌 마을 근처에 있어 이모의 도움으로 주교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도 하며 주교님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교의 사랑을 받은 지 1년 남짓한 1839년 기해(己亥)박해가 일어나 많은 교우들과 앵베르 주교, 모방(Maubant, 羅) 신부, 샤스탕(Chastant) 신부가 잡혀 주교와 신부들은 새남터에서, 교우들은 서소문 밖 형장에서, 당고개에서, 옥에서 치명 순교하였다.

이러한 기해(己亥)박해 때 그의 부친 박 바오로는 훈련도감 포수(訓練都監 砲手)로 봉직하고 있었기에 새남터에서 순교한 주교, 신부들의 순교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박 바오로는 몇몇 교우들의 도움으로 새남터에서 주교와 신부들의 시신을 지키던 군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모래로 대강 덮은 무덤 가까이 가서 손으로 모래를 파헤치고, 잘라진 목과 시체를 전부 찾아내어 머리 셋은 다 수염이 길어 입에 물고, 시체 삼구는 등에 업고 양팔에 끼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교우들이 준비한 관에 대강 수습하여 그 밤으로 노고산(老古山, 현 마포구 노고산동)에 안장하였는데 이는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적 고귀한 희생이었다. 그 후 박 바오로는 복잡한 서울 근교에 안장한 성직자의 묘가 안심이 안 되어 1843년, 박씨 집안의 선산인 삼성산(三聖山, 현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장하며 사기그릇에 순교 연월일과 이름을 먹으로 써서 묘에 함께 묻고, 후일 찾기 쉽게 표식을 해 놓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삼성산에 모셔진 묘로 그의 아들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후일 성교회에서 성직자 무덤을 찾을 터이니 네가 잘 보아 두었다가 가르쳐 드려야 한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박 바오로는 김대건(金大建) 신부가 1846년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자 안성(安城) 미리내로 이장되기 전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남터에서 김 신부의 시신을 찾아내서 와서(瓦署, 현 용산구 한강로 3가 왜고개)에 안장하였다. 당시 17세였던 박순집도 서소문과 당고개를 거쳐 새남터 형장으로 가는 김대건 신부를 목격하였다.

박순집은 25세에 그의 부친과 같이 훈련도감의 군인이 되었다. 1866년 병인(丙寅)박해가 일어난 뒤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Berneux, 張) 주교, 브르트니에르(白) 신부, 볼리외(徐) 신부, 도리(金) 신부, 프티니콜라(朴) 신부, 푸르티에(申) 신부와 우세영(禹世英, 알렉시오) 등이 3월 7일과 3월 11일 새남터에서 순교할 때 박순집은 군인으로 참여하게 되어 이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순집은 아버지 박 바오로의 뜻을 이어 가기로 결심하고, 박순지(朴順之, 요한) 등 몇몇 신자들과 함께 3월 28(음) 시신을 찾아내어 새남터 부근에 임시 매장한 후 4월 14일(음)에 다시 와서(왜고개)로 이장하였다. 그리고 3월 7일과 9일에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남종삼(南鍾三, 요한)과 최형(崔炯, 베드로) 시신도 신자들과 함께 찾아내어 와서에 안장하였으며, 3월 9일에 순교한 전장운(全長雲, 요한), 3월 11일에 순교한 뒤 가족들에 의해 거두어진 정의배(丁義培, 마르코) 회장의 시신은 훗날 노고산에 안장하였다.

병인년 박해가 날이 갈수록 혹독해져 갈 즈음, 프랑스 함대가 서양 선교사의 처형에 대한 항의로 강화도를 통해 한강 양화진까지 침입, 전투를 벌임과 동시에 강화도에 상륙하여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관아와 민가에 방화한 후 많은 문화재를 약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대동강을 통해 평양까지 들어온 미국 상선이 통상을 요구하다 아군에 의해 배가 전소된 사건을 빌미로 미국 함대가 인천 제물포까지 올라와 항의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행하여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실권자 대원군은 천주교인들이 서양 오랑캐를 불러 들였다는 빌미로 더욱 박해를 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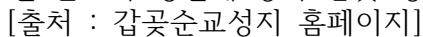
이러한 연유로 박순집의 가족도 결국 검거망에 걸리게 되어 양화진(현 절두산)에서 1866년 10월 17일 형 요왕의 아들 박 바오로(20세), 고모 박 막달레나, 1868년 3월 29일 부친 박 바오로(63세)가 잡혀 순교하였고, 포청 옥에서 1868년 3월 26일 큰삼촌 박 바오로(70세), 큰삼촌 아들과 그의 부인, 작은삼촌과 그의 부인, 3월 29일 형 박 요왕(46세), 형수 손 발바라(39세), 12월 21일 장모 홍 유시디아(58세), 1870년 2월 21일 팔촌 형 박 바오로와 함께 옥사하였고, 인천 제물포에서 이모부 손 베드로 넓적이(68세)와 이모, 이모부의 사위 박치문(요왕, 42세)이 1868년 4월 20일에 인천에서 순교하였고, 형 박 서방(58세)이 4월 20일에 강화에서 순교하였다. 이처럼 박순집 일가에서 16위의 순교자가 탄생하였으나 박순집은 여러 박해의 검거망을 기적적으로 피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래서 박 베드로는 가족 시체들을 찾아내어 아버지와 형님 내외분, 백부의 시체를 '둔집'이란 곳에 안장하였다.

공식적인 박해가 철회된 1876년, 박순집은 교회의 밀사 최지혁(崔智赫, 요한)과 고종의 유모 박(朴) 마르타의 딸 원(元) 수산나 등과 협력하여 드게트(崔) 신부, 블랑(Blanc, 白) 신부 등을, 1877년에는 리델(Ridel, 李, 제6대 교구장) 주교, 두세(丁) 신부, 로베르(金) 신부 등을 입국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후 1888년에 제7대 조선교구장 블랑(白) 주교가 프오델(朴) 신부에게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하자 프오델 신부는 박순집을 불러 자신이 보고 들은 것과 순교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 자신의 집안과 다른 순교자들의 행적을 교회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기 권 타대오에게는 한 마디도 바꾸지 말고 기록하도록 하여 증언록이 작성되었는데 이 증언록이 박순집 증언록(丙寅事蹟 朴順集證言錄)으로 3권에 153명의 순교자 행적이 기록되어 현재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899년 10월 30일, 박순집의 도움으로 와서에 있던 7명의 유해가 발굴되어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안장되었고, 1901년 10월 21일에 삼성산에 묻혀 있던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의 유해도 발굴되어 예수성심신학교를 거쳐 같은 해에 명동성당 지하실에 안치되었으며, 1909년 5월 28일에는 와서에 묻혀 있던 남종삼과 최형의 시신이 발굴되어 명동성당에 안치되었다. 이처럼 순교자들의 행적 증언과 유해 발굴에 큰

공을 세운 박순집은 1878년에 홍제원(현 홍제동) 장거리 고개 밑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공소로 내놓았고, 1888년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하자 셋째 딸 박황월(朴黃月,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을 수녀회에 입회시켰다. 그래서 박 수녀는 조선인 최초 5명의 수녀 중 한 분으로 그가 95세의 일기로 선종하기까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놓았는데 이 글에는 자신의 가족들의 순교 행적과 신앙생활, 수도회 역사의 내용으로 아버지 박순집 증언록처럼 교회의 산 기록이 되고 있다.



■진무영 순교성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복문길 41 ☎(032)933-2282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이자,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많은 유적이 남아 있는 섬 강화도. 강화읍내 중심가를 가다 보면 ‘강화 고려궁지’(江華 高麗宮址)라는 안내 표지판을 찾을 수 있다.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고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아 건물터이다. 고려궁지는 읍내 중심가에서 북쪽에 있다. 궁지로 가는 길에는 한옥으로 유명한 ‘성공회 강화 성당’이 있다. 궁지로 가는 오르막길 오른쪽에는 강화초등학교가 있고, 그 맞은편에 ‘천주교 강화 성당’이 있다. 성당의 정문에서 왼편으로 조금 들어가면 제대와 십자고상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진무영 순교성지이다.

진무영(鎭撫營)은 숙종 4년(1678년) 강화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들을 함께 엮어 창설한 군영(軍營)이었다. 이러한 방어 체제를 구축한 이유는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강화도는 서울과 가까워 물길로 아침에 떠나면 해 질 무렵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게다가 황해도와 삼남(三南) 지역을 연계하는 수로와 한강 하류가 연계되는 요충지에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강화도는 일찍부터 중요한 군사 방어기지로 간주되었다. 17세기 초, 청나라가 조선에 압박을 가하면서 강화도의 군사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강화도는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국왕 일가와 조정의 신하들이 피난할 수 있는 지역인 보장처(保障處)로 지정되었고, 행정단위도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비상시, 경기·황해·충청·전라도의 연안 읍들이 강화유수부를 중심으로 군병과 군량을 지원한다는 해안 방어 체제의 기초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방어 체제는 인조(仁祖) 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그의 일환으로 진무영이 창설되었다. 이로써 강화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경기도와 황해도 연안 읍을 통솔하는 하나의 해안 방어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영조(英祖) 대에 이르러 진무영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방어 체제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청나라와 조선의 긴장 관계가 완화된 것이 한 원인이었다. 또한, 국방정책도 비상시 수도를 버리고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사수하는 ‘도성수비론’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강화유수부의 전략적 기능은 서해안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무영의 군사 활동도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그런데 진무영의 기능이 다시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1866년에 발발한 병인양요였다. 병인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한 데에 대한 보복과 통상을 목적으로 프랑스 극동함대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공한 것이었다. 10월 16일 프랑스군은 강화부를 점령하고, 대량의 서적과 무기, 금은괴(金銀塊) 등을 약탈했다. 그러나 11월 9일, 프랑스군은 정족산성에서 양헌수(梁憲洙)가 이끄는 조선군의 공격으로 패퇴했고, 이를 계기로 11월 11일 강화도로부터 철수했다.

이처럼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가 손쉽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조선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조선 정부는 중앙 및 각 지방의 해안을 방어하는 군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그러한 가운데 진무영도 다시금 해안을 지키는 최대의 해방(海防) 기지로 정비되었다.

한편 병인양요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침입한 것은 천주교 때문이고, 그로 인해 조선의 강역이 서양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졌으니, 양화진을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새남터와 서소문 밖에서 처형하던 신자들을 총융진(總戎陣)이 있던 양화진에서 처형하도록 했다. 양화진은 순교자들의 피로 적셔진 곳이라 하여 오늘날에는 절두산(切頭山)이라 불리게 된다. 그리고 진무영에서도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고, 어떠한 죄목으로 처형되었을까?

●진무영의 순교자들

1868년 5월(음) 장치선(張致善)·최영준(崔英俊) 등이 진무영에서 효수(梟首)되었다. 그들의 죄목은 무엇이였을까?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우포도청이 보고한 바를 보니, ‘사학(邪學) 죄인 장치선(張致善)과 최영

준(崔英俊)은 양인(洋人)들과 내통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들이기도 한 일의 진상을 모두 자복했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일을 꾸며 화악한 죄는 흉악하고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천지간에 이보다 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 장치선과 최영준을 진무영으로 압송하여 군민(軍民)들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하여 백성들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5년 5월 22일).

장치선과 최영준의 죄목은 '서양인들과 내통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들이기도 한 일'이었다. 서양인들과 내통하고,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들였다? 이것만으로는 장치선과 최영준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장치선은 1830년생으로, 병인박해 순교자 장주기(張周基, 요셉) 성인의 조카다. 5세 때 경기도 양지 언리에 사는 오자현(吳子賢)에게 천주교를 배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세례명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는 장성한 후에 많은 기도문을 보고 외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들과도 만났다.

그는 충청도 제천에서 살고 있을 때인 1866년 봄에 베르뇌(S. F. Berneux, 張敬一) 주교가 붙잡혀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3월경(음)에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지자익(池子益)을 만났다. 이때 지자익은 박해의 사정을 중국 상해에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알려 프랑스 선박을 불러서 남은 신자들을 구제하고 나아가서는 천주교를 온 나라에 전파하는 것을 꾀하였다. 이를 듣게 된 장치선은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연락의 책임을 맡아 적극 도왔다. 그들이 서울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배를 구입하여 출항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리델 신부(F. C. Ridel, 李福明)와 연락이 닿았다. 마침 리델 신부도 중국으로 가서 조선의 박해 소식을 전하고자 할 참이었다. 장치선 등은 리델 신부를 피신시키기로 하고, 출항 준비를 했다. 준비가 끝나자, 5월(음) 장치선은 리델 신부와 최영준·최선일(崔善一) 등과 함께 충청도 신창 용당리(현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포구에서 출발하였다. 그 일행은 중국 산둥반도의 연태(沿台, 즉 煙台)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리델 신부와 조선인 3명은 남고 장치선 등은 조선으로 돌아왔다.

1866년 10월 프랑스 함대가 제2차 조선 침공을 단행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군의 공격으로 패퇴하였고, 이를 계기로 철수를 결정하였다. 퇴각하기 전, 장치선은 김계쇠(金季釧)·박복여(朴福汝) 등과 함께 프랑스 함대로 가서 리델 신부와 만났다. 리델 신부는 통역으로 프랑스 군함에 승선하고 있었다. 장치선 등은 리델 신부에게 박해의 상황, 조선에 남아 있던 페롱(S. Feron, 權)과 칼레(A.-N. Calais, 姜) 신부의 소식 등을 전하였다. 리델 신부와 조선인 신자들은 군함을 타고 중국 상해로 가서 1년 가까이 머물렀다. 그러다가 1867년 장치선은 김계쇠·최영준과 함께 조선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이 귀국할 때 칼레 신부는 은자(銀子) 70량을 주며 신자들의 상황을 잘 살펴 속히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신부 1명을 보낼 것이니 영접할 방법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귀국 후, 장치선은 1867년 10월(음) 백동(현 혜화동)으로 이사하여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가 1868년에 체포되었다.

최영준(요한)은 1811년 경기도 용인 굴암 태생으로, 최인서(崔仁瑞)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다. 7-8세 때 부친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고, 1839년경에 앙베르(L.-J.-M. Imbert, 范世亨)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서울 아현에 거주하면서 회장직을 수행했고, 선교사들과 지도급 신자들과도 교류하였다. 또한 서상기(徐尙基, 베드로) 등과 함께 수차례 변문을 왕래하며 중국 교회와의 연락 임무를 맡기도 했다. 그리고 1866년 5월(음)에는 장치선 등과 함께 리델 신부가 중국으로 피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최영준은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정박 중인 프랑스 함대에 승선하여 리델 신부를 만났다. 그리고 프랑스 함대가 철수할 때에 장치선 등과 함께 중국 상해로 갔다가 1867년 장치선·김계쇠와 함께 귀국하였다. 서울 산막리에서 쌀장사로 생활하던 최영준은 1868년 4월 10일(음)에 아내 주데레사와 함께 체포되었다.

여기까지 장치선과 최영준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보았다. 그들은 리델 신부를 안전하게 중국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박해의 상황을 알려 프랑스 선박을 불러서 남은 신자들을 구제하려고 했다. 더 나아가서는 천주교를 온 나라에 전파하고자 했다. 장치선은 4월 18일(음) 포도청에서 있었던 문초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다. 조선 정부는 이를 '서양인들과 내통하고,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들인 흉악하고 패역한 일'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치선과 최영준을 진무영으로 압송하여 처형하도록 했다. 5월 22일(음) 장치선과 최영준은 진무영에서 효수되었다. 진무영으로 보내 처형한 이유는 강화도의 군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처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양화진과 같이 ‘서양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강화도를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 깨끗이 씻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한편 진무영 순교자들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 박 서방, 조 서방 등도 순교하였다. 박 서방은 박순집(朴順集, 베드로)의 형이었다. 잘 알려졌다듯이, 박순집은 많은 순교자들의 행적을 증언하고, 그들의 유해 발굴에도 큰 공을 세운 이였다. 하지만 박 서방의 신앙생활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조 서방도 마찬가지다. 조 서방은 조 참봉(參奉)의 부친이고, 나이가 50여 세라는 점밖에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들이 최영준과 함께 잡혔다는 점을 볼 때, 최영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성지 조성

현재 강화 성당 구내에 진무영 성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진무영 터가 어디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1976년 강화문화원에서 간행한 “강화사”(江華史)에는 강화 농협이 있던 자리로 추정했다. 성지 연구자인 한종오(베드로)도 문헌과 구전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옛 강화 농협 자리에 있는 은혜 교회부터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강화 성당까지를 진무영 터로 추정하고 있다.

진무영 성지가 조성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2004년 강화 본당은 성당 구내에 성지를 조성하고 9월 15일에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성지의 모습은 소박하다. 옆의 일반 주택과의 경계에 담을 두르고 제대와 십자가상을 세웠다. 그리고 제대 뒤에는 반원형 장식물을 세웠다. 같은 해 9월 20일 인천교구 성지개발위원회는 성지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세웠다. 현재 인천교구에서는 진무영 성지에 대한 문헌 연구와 고증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출처 : 교회와 역사, 2012년 5월호, 강화도의 순교지 진무영 성지, 양인성(대건 안드레아,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최인서(崔仁瑞) 요한(1810-1868년)

순교자. 일명 영준(英俊), 세례명은 요한. 경기도 용인(龍仁) 출생. 1866년 병인(丙寅)박해 때 서울 애고개(지금의 阿岷洞)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를 비롯한 7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되고 박해가 점점 가열되자 1866년 6월말 장치선(張致善), 박성집(朴聖集) 등 10명의 교우들과 함께 조선의 박해상황을 프랑스 정부에 알리려는 리델(Ridel, 李福明) 신부를 중국으로 탈출시켜 주었고, 이어 이해 9월 병인양요(丙寅洋擾)가 발생하자 리델 신부를 태우고 강화도에 정박 중인 프랑스 군함에 승선, 리델 신부에게 조선에 남아 있는 칼레(Calais, 姜) 신부, 페롱(Feron, 權) 신부의 소식과 박해상황을 전하였다. 이로 인해 1868년 5월(음) 아내와 함께 체포되어 아내 주 데레사는 옥사하고 자신은 2명의 교우와 함께 강화도에서 처형당해 순교하였다.

●장치선(張致善, 1810-1868)

순교자. 세례명은 미상. 성인 장주기(張周基)의 조카.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害)로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를 비롯한 7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많은 교우들이 순교하자 이 해 6월말 최인서(崔仁瑞) 등 10명의 교우와 함께 조선의 박해상황을 프랑스에 전하러는 리델(Ridel, 李福明) 신부를 중국으로 탈출시켜 주었고, 이어 이해 9월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나자 리델 신부를 태우고 강화도에 정박 중인 프랑스 군함에 승선, 조선에 남아있는 칼레(Calais, 姜) 신부, 페롱(Feron, 權) 신부의 소식과 박해상황을 리델 신부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온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1868년 순교하였다. [출처 : 이상 한국가톨릭대사전]

■강화고려궁지(관청리 형방)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032)933-2282

강화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 남짓이면 닿는 곳에 강화 본당이 있어 강화도를 순례하는 이들을 안내해 준다. 성당에서 채 100m가 안 되는 곳에 조선 시대 천주교인들에 대한 혹독한 박

해의 현장이 있다.

울창한 나무들 속에 하얀 건물로 세워진 강화 본당 위쪽으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항전하던 39년간의 궁궐터가 있다. 1232년 고려 고종 때 강화천도와 함께 세워진 궁궐터는 1964년 사적 제133호 ‘고려궁지’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조선 시대에 건립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5호인 강화유수부 동헌과 유형문화재 제26호인 이방청, 외규장각(2003년 복원), 강화동종(1999년에 만든 복제품, 원래 종은 강화역사관으로 이동 전시) 등이 남아 있다.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이곳 동헌과 형방에서 천주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고문이 자행됐다고 한다.

고려궁지 밖에는 조선 시대에 해상경비 임무를 맡았던 군영이자 천주교 신자들을 끌어내다 참수했던 처형지인 진무영(鎭撫營)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주민들이 그 위치를 증언하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고증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연구 결과 강화 성당 부근 농협 자리(현재 은혜교회 자리) 근처로 추정하고 있다.

강화는 굽히지 않는 신앙의 현장이자 역사의 교육장이기도 하다. 약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지석묘를 비롯해 단군 신화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 그리고 고려 시대 몽골에 항쟁했던 역사, 팔만대장경 및 금속활자와 고려자기 등을 꽃피웠던 곳이 바로 강화이다. 조선 시대에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강화도 조약 등 역사의 굽직한 사건들이 강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울러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모두 88점의 문화재들은 강화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신앙 교육뿐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 교육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화도를 찾는 순례자들이 둘러봐야 하는 곳으로는 그 외에도 갑곶 순교성지와 갑곶 돈대,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등이 있다. 인근의 통진과 김포 지역에도 신앙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다. [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18년 6월 11일)]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741번길 107 ☎(032)932-6354

100여 년의 박해시대를 거친 한국 천주교회에는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3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지만 이름 정도라도 알려진 순교자는 약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한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순교자들의 이름이나 행적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과 고귀한 순교 정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96년 가을 인천가톨릭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한국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조성 사업은 순교자들의 위대한 정신과 삶을 현양하고 널리 전함으로써 하느님과 선조 순교자들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인천교구는 섬 전체가 역사 유적지이자 순교 터이기도 한 강화도의 ‘강화 청소년 야영장’(현 바다의 별 청소년 수련원) 내 일부 부지에 ‘한국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을 조성해 2002년 8월 14일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한국의 순교자들, 특히 무명 순교자들에게 봉헌하였다.

한국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이 봉헌된 강화 청소년 야영장은 숙박 시설 없이 강당과 수영장 등만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200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04년 5월 5일 숙박 시설과 식당, 인공암벽 등 제반 시설을 갖춘 후 ‘바다의 별 청소년 수련원’으로 축복식을 갖고 개원하였다.

한국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조성 당시 성모당과 십자가의 길, 순교자 현양당 등이 들어섰다. 이어서 전국 유명 성지의 상징물이 있는 ‘순교자의 길’이 조성되었고, 무명 순교자상과 무명 순교자 현양탑, 연못을 돌며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는 ‘묵주 연못’ 등이 조성되었다. 2005년 11월 3일에는 기존의 강당 건물을 리모델링한 ‘무명관’ 2층에 70여 평 규모의 ‘일만위 순교자 기념성당’을 마련했다. 무명관은 2층 성당과 함께 1층에 삼덕방과 역사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삼덕방은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한 소규모의 피정 장소로 사용된다. 또한 기념성당에는 홀로 기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개인 성체조배실도 마련되었다.

2007년 6월 26일에는 청소년 수련원 우측 계곡 옆으로 ‘주님 위로의 동산’과 ‘순교자의 십자가

길'을 조성하여 축복식을 거행했다. '위로의 주님상'이 세워진 주님 위로의 동산은 세상 근심과 걱정에서 지친 신자들이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께 기도하며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조각가 조숙의 교수가 제작한 '위로의 주님상'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예수님이 아닌 자상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근심에 쌓인 인간을 품에 안아 주시려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순교자의 십자가 길'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부터 성장기까지 교회사의 중요한 15가지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한 십자가의 길 15처를 배치해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친 순교자들의 신앙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했다.

한국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내 성모당 바로 아래에는 병인박해 때 순교한 남종삼 요한 성인의 유해 일부를 모신 '성 남종삼 기념관'도 건립되었다. 이 유해는 성인의 후손인 남기윤(베네딕토) 씨가 큰고모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남형우 수녀에게 인도받아 기증한 것으로 척추뼈 1점, 치아 4점, 슬개골 1점, 머리카락과 부위가 불명확한 부스러기 뼈 등이다. 인천교구는 2004년 8월 31일 유해 봉안 예식을 갖고 임시로 주교관 경당 감실로 옮겨 모셨다. 유해에 대한 방부 처리를 거쳐 일부는 그해 9월 7일 갑곶 순교성지에 봉안하였고, 나머지는 2007년 10월 26일 축복식을 가진 성 남종삼 기념관에 모셨다. 이 기념관에는 성인의 유해 10여 점과 성인의 생애에 대한 소개 자료, 기적 증거 자료 등이 보존·전시되어 있다.

2018년 11월 24일에는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내에 순례자들의 침묵 순례를 돕기 위해 조성한 '혼자 걷는 묵주기도 4 신비길' 축복식을 거행했다. 한국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은 '순교자를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한 곳이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통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을 찾고 배우는 '신앙의 학교'이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기도하고 쉬어갈 수 있는 '삶의 성지'이다.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르다 보면 무명 순교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 있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 (최종수정 2019년 12월 9일)]

